



대한지질학회 소식지

NEWSLETTER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제 51 호 2008. 04

취임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학문의 큰 발전을 기원하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 6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지질학회의 제 34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금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굴지의 대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원로회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과 전임 회장단들의 지질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학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원에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낙오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려면 차별화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어느 집단이 타 집단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문가들이 상부상조하는 끈끈한 협력관계 속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분야의 학회와 비교해 볼 때 지질학회는 국제적인 학문의 경쟁력과 산업기여도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질학계 스스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을 전문적으로 갖는 인구가 물리, 화학, 수학 등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회는 10여 개 이상으로 분화되어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열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유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만족스럽게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분열된 소수의 힘으로는 국제적으로 개방화된 시대에서 스스로의 영역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체된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지만, 먼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회원관리와 대대적인 회원 확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한지질학회장
이 현 구

CONTENTS

APRIL 2008

- 01 취임인사
- 02 34대 임원진
- 03 4대 전문위원회
- 03 2008년도 주요 역점사업
- 04 UNO이 정한 지구의 해 사업
- 04 신규 홈페이지 오픈
- 05 2008년도 학술활동
- 07 지질학회지
- 08 편집위원회 구성
- 09 Geosciences Journal
- 09 전임회장단 및 원로회원님들과의 신년하례식
- 09 2007년도 학술활동 사업실적
- 13 후원활동 결과
- 15 사무국 직원 채용
- 15 신입 회원
- 15 학회비 납부 안내
- 16 회원동정
- 16 근조기 안내
- 16 회원님 정보가 변경되었습니까?
- 17 「UNO이 정한 지구의 해」
선포식 및 지구과학 한마당 축제 캘러리
- 18 학회창립 60주년 캘러리

발행인 | 이현구

편집인 | 오창환, 이광식, 이재일

발행처 | (사)대한지질학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3호(우.135-703)

Tel : (02) 3453-1550

Fax : (02) 3453-1824

E-mail : office@gskorea.or.kr

홈페이지 | <http://www.gskorea.or.kr>

인쇄기획 | 동양기획

T. (02)2272-6826 F. (02)2273-2790

E-mail : dy98@unitel.co.kr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 일시 : 2008년 10월 23일(목) - 24일(금)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 논문 초록 제출마감일 : 2008년 9월 15일(월)

학회는 오랜 전통에 비해 그 회원 규모가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학회의 회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우리학회의 회원이 아님을 알고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학회가 가입하고 싶은 학회에 애하고 매력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대수준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에 관심 있는 지질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학회회원들의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학회에는 대입 수능고사에서 지구과학분야가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질관련 기술사 자격이 차별대우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질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질관련 모든 학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관련학회장들이 자주 만나 지질학계의 난제들을 공동대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이런 자리를 통해 지질학을 전공한 우리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차별 받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술발표회의 활성화와 학술지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수한 학회지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학술발표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는 일이야말로 학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면서도 친절한 논문심사체제를 확립하고, 양질의 많은 논문이 발표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학회의 예산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지원금 확보의 극대화는 물론이고, 지질관련 연구원, 공사, 산업체와의 긴밀한 상호보완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연구 용역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산·업·체 직원들의 재교육과 학생들의 현장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해”(07-09)의 성공적인 행사의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지질학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학회와 관련 학회들과의 돈독한 유대 관계와 공동의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추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임원진은 물론이고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날 우리 학회의 부회장직과, 타 학회의 회장직 등을 수행하는 동안 체득한 조그만 경험들을 거울삼아 성실하고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학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일

(사) 대한지질학회 회장 이현구

제34대 임원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6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한 직접 선출로 임기 2년(2008.1.1-2009.12.31)의 제34대 임원진이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회 장	이현구	충남대학교 phiklee@chu.ac.kr
부 회 장	도성재	고려대학교 sjdoh@korea.ac.kr
	정대교	강원대학교 dkcheong@kangwon.ac.kr
총무이사	오창환	전북대학교 ocwhan@chonbuk.ac.kr
	이광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slee@kbsi.re.kr
재무이사	고희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jkhoh@kigam.re.kr

기획이사	이성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rlee@kigam.re.kr
	임만빈	현대엔지니어링 mbim@hec.co.kr
	박천홍	한국해양연구원 chpark@kordil.re.kr
학술이사	조현구*	경상대학교 hgcho@gsnu.ac.kr
	문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msh@kigam.re.kr
	김준모	서울대학교 junmokim@snu.ac.kr

국제협력이사	전승수*	전남대학교 sschun55@naver.com
	황재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ajh@kigam.re.kr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hsm@kigam.re.kr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yjdjm@kigam.re.kr
섭외홍보이사	허민*	전남대학교 minhu@chonnam.ac.kr
	김기업	한국농촌공사 kukim@ekr.or.kr
	이재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leeji@kopri.re.kr
	윤운상	(주)넥스지오 gals@nexgeo.com
갑사	유재영	강원대학교 jyu@kangwon.ac.kr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klee@kigam.re.kr

(*는 부문별 위원장)

제4대 전문위원회

대한지질학회 제437차 정기이사회(07.7.30)에서는 7월 20일까지 학회비를 완납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각 분야별로 제4대 전문위원을 선출하였습
니다.

임기: 2007. 8. 1 ~ 2009. 7. 31

위원장	이진한	고려대학교
총무	원중선	연세대학교
위원	강준호	현대건설기술개발원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정식	지오스캔
	김건영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규상	㈜인텔리지오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선기	대림산업㈜
	김성구	GS건설㈜
	김순오	경상대학교
	김완중	오리엔트하드메탈즈출당즈코리아㈜
	김정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종현	공주대학교
	김형수	한국수자원연구원
	노병돈	삼성물산㈜ 건설부문
손문	부산대학교	
	신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인옥	전남대학교
유찬민	한국해양연구원
윤시태	(주)한국수력원자력
이덕기	기상청
이상선	한국전력기술㈜
이성근	서울대학교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구	과학기술부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이종덕	전북대학교
이종익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진용	강원대학교
이창식	(주)동해이앤지
이현구	대한지질학회 (당연직)
이현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윤득	경북대학교
장찬동	충남대학교
전병철	한국농촌공사
정교철	안동대학교
최상훈	충북대학교
최원학	한전전력연구원
최정찬	부경대학교

2008년도 주요 역점사업

■ 회원 관리 위원회

담당: 기획이사팀, 도성재 부회장, 오창환 총무이사

- 회원관리 및 회원 확장
- 사무국 규정 제정 및 회계 관리
- 회비 및 등록비 현실화
- 지질학회 정관 및 제반 규정 정비, 임원선출 규정 개정
- 국외 지구과학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회원 관리
- 회원 복지 및 권익보호

■ 학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담당: 학술이사팀, 도성재 부회장, 오창환 총무이사

- 춘계 및 추계 정기총회와 학술발표대회 성공적 개최 추진
-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양적, 질적 향상방안 구축
- 학회간 협조 체계(Union) 구축 및 학회 통합
- 지질학회와 지구과학 전문학회와의 학문간 협력체계 구축
- 한국을 빛낸 지질학자 국내 발표 추진

■ 산·학협동 및 국제협력 추진위원회

담당: 국제협력이사팀, 정대교 부회장, 오창환 총무이사

- 산학협동활성화(직장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

- 재정 및 기금 확충사업(후원 혹은 지질학회를 통한 연구 사업 유치 등)
- 한·중, 한·일 지구과학 협력위원회 조직(한중일 공동 야외 조사 포함)

■ 지질정책 및 홍보·활성화 추진위원회

담당: 석의홍보이사팀, 장대교 부회장, 오창환 총무이사

- 지질관련 정책 지원
- 홈페이지 개편 및 지질학회 대외 홍보
- 지구의 해 관련 운영규정 제정과 성공적인 지구의 해 행사 협력방안 검토

「UN이 정한 지구의 해」 사업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위탁지원사업을 대한지질학회가 체결하여 2008년도 UN이 정한 지구의 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선포식 및 지구과학 한마당 축제

- 일시: 2008년 4월 23일(수) - 4월 25일(금)
- 장소: COEX 신관 1층 그랜드볼룸
- 주최: UN이 정한 지구의 해 한국위원회
- 주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지구과학회, 대한자연환경지질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암석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석유지질학회
-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선포식 주요행사

10:30-12:00	선포식
12:00-13:30	오찬
13:30-16:00	지구과학 체험 한마당

· 부대행사

- 해양과학기술특별전시회, 극지사진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
- 개막식: 4월 23일(수) 14:00

장 소: 3층 310호 및 로비

- 지구시스템관련 14개 학회의 공동학술대회

일 시: 4월 23일(수) - 25일(금)

장 소: 3층 및 4층 컨퍼런스센터 각 회의장

주 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미래융합기술 개발

- 해양과학기술 포럼

일 시: 4월 24일(목) - 25일(금)

장 소: 3층 311호

· 전 시

- 지구시스템기술관련 업체들과 연구사업, 학회의 전시 부스 마련
- 기 간: 4월 23일(수) - 25일(금) 12:00-14:00
- 장 소: 3층 330호(포스터발표장) 입구

■ UN이 정한 지구의 해 한국위원회

위 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310호

Tel : 02-3453-0503

Fax : 02-3453-1824

홈페이지: www.IYPE-Korea.org

E-mail: knc2008@chol.com

신규 홈페이지 오픈 www.gskorea.or.kr

다양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여 오픈 하였습니다.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학회비 및 두고료 등을 전자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상 운영되기까지 다소시일이 필요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학술활동

■ 신규 발간 지질도폭 현장세미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2007년도에 신규 발간된 1/50,000 축척의 기본지질도폭에 대하여 현지에서 지질분포와 층서, 지질구조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2008년 3월 19일 - 21일(2박 3일간)

- 장 소: 지포리, 김화, 양구 도폭 지역

- 참가자: 김남훈 권상훈 권태환 기원서 김대영 김도현
김문섭 김복곤 김복철 김용국 김유봉 김유희
김윤섭 김정민 김정현 김현철 문상호 박계현
박성우 박환구 송교영 송용선 양민주 오현주
오형민 이기욱 이동우 이병주 이승렬 이용남
이인우 이현구 이호선 임순복 장현일 조동룡
최문철 최범영 최승현 최위찬 현해자 황재하
(총 42명)



【참가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대측정팀 김윤섭

아직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 아침, 서울을 떠난 버스는 두 시간여를 달린 후 집결지인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과주골 순두부" 앞에 도착했다. 이어 이십 여분이 흐르자 대전에서 출발한 차량이 도착하며 "2008년 신규 발간 지질도폭 현장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도폭 발간에 맞추어 야외조사를 함께 하며 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대한지질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해주었다. 지질도를 직접 작성하신 분들에게 도폭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따끈따끈한 도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최근 들어 야외조사를 즐길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던 차에 가문의 단비와 같았다고나 할까? 올해 출간될 3개 도폭(지포리, 김화, 양구)은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특히 연천지역을 공부한 나에게 는 매우 흥미롭고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 첫째날 지포리도폭 지역

"과주골 순두부"에서 순두부와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첫 번째 야외조사 지역인 지포리로 향하였다. 한 시간 가량이 지난 후 지포리에 도착하였고, 지포리도폭을 담당하신 황재하, 김유희 박사님의 지포리도폭에 산출하는 다양한 암상에 대한 소개로 야외조사를 시작했다. 지포리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은 크게 선캄브리아기의 기반암 및 화성암, 시대미상의 퇴적암, 이들을 관입한 중생대의 다양한 화성암체들, 그리고 제 4기의 현무암과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관찰한 노두는 갑악산 변성섬장암으로, 문산도폭에서 명명된 원생대의 알칼리 심성암체이다. 지포리도폭에서 관찰되는 선캄브리아기 암석 중 가장 후기의 암석으로, 문산지역에서 산출하는 변성섬장암과 그 형태와 조직이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관찰 대상은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로 기반암을 구성하는 변성퇴적암류에 비해서 변성도가 매우 낮으며, 사층리나 점층리와 같은 1차 퇴적구조들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암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어떤 암체와 대비되는가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원서 박사님은 퇴적상, 퇴적구조, 암상 변성도 등을 보았을 때 이 암체는 삼척기 후기에서 유라기 초기에 퇴적된 김포층군과 대비될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암체를 관입한 반상섬록암과 유사한 암상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가 삼척기로 퇴적연대와 상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에서 자형에 가까운 석류석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석류석의 산출로 미루어 보아 퇴적물들의 이동거리가 길지 않았을 텐데, 석류석의 기원지에 대해 호기심이 커져갔다.

마지막으로 관찰한 노두는 화강암으로 복운모 화강암 및 함석류석 흑운모 화강암 등의 대보 화강암과 이 암체들을 관입하고 있는 백악기 명성산 화강암이었다. 명성산 화강암의 관입으로 생성된 냉각연변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날 야외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행은 철원군 김화읍의 와수리로 이동하였다. 와수리는 예전에는 외판지역에 동떨어져 있는 “라스베가스”에 대비되어 “와수베가스”로 불렸던 지역이라고 한다. 철원 인근에서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장소로 기억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때의 화려했던 시절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저녁으로 감자탕과 소주를 함께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호프집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야외지질학의 낭만을 이야기 하며 밤이 저물어 갔다.

● 둘째 날 김화도폭 지역

철원 청정미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행은 첫 번째 노두를 향하기 위해 버스로 몸을 돌렸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번 현장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간단한 자기 소개의 시간이 있었다. 조동룡, 송교영 박사의 안내로 진행된 김화도폭 지역 야외조사는 오전에는 화강암을 관찰하였다. 김화도폭을 보면 지역 내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지역 야외조사는 화강암의 향연이라 할 만했다. 도폭 지역내 산출하는 화강암은 저어콘 연대측정에 의해 시기적으로 삼첩기, 유라기 그리고 백악기 암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삼첩기 화강암류는 염리상 흑운모화강암 및 거반정질 화강암의 형태로 산출하고,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차지하는 유라기 화강암체는 흑운모화강암, 함석류석 복운모화강암, 반상 흑운모화강암, 점이질 흑운모화강암, 각섬석화강암 등의 다양한 암상으로 세분된다. 백악기 화강암에는 홍색 각섬석-흑운모 화강암인 명성산 화강암과 소규모 관입상을 보이는 반화강암이 있고, 산성암맥은 규장암과 유문암으로서 도처에서 소규모 관입체로 분포하였다. 암상의 세부적인 변화를 노두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대자율을 측정함으로써 이들 암상을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대자율은 화강암체가 기원한 지체구조적 환경과 마그마의 기원에 따라서 달라지며, 주로 자철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막국수로 점심으로 먹고, 오후에는 임격정의 채취가 느껴지는 고석정을 방문해 제 4기 현무암을 관찰했다. 고석정의 수려한 노두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일행은 사십 여분을 달려 승리전망대에 도착하였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 위치한 승리전망대는 전망대가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육안으로 북한 지역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원경을 이용하여 북한지역 아침리 마을 주민들과 북한초소의 인민군 그리고, 비무장 지대의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승리전

망대를 뒤로 하고 일행은 다시 숙박을 위해 춘천으로 향했다. 약 두 시간여를 달려 남춘천 역전에 자리를 잡고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찾은 춘천호반위에는 달이 아름답게 떠있었고, 그렇게 날은 저물어 갔다.

● 셋째 날 양구도폭 지역

오전 아침 시경 남춘천역을 뒤로 하고, 일행은 다음 야외조사를 위해 화천댐으로 향하였다. 화천-양구지역은 백담암상의 고온 변성암이 산출하는 지역으로 대학원 재학시절 학부 학생들과 함께 야외조사를 위해 자주 찾던 지역이기도 했다. 양구도폭 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 편암 및 편마암과 각섬암 그리고 유라기 및 백악기 화성암류, 제4기 충적층 등의 암상이 분포한다. 배후령 정상에서 최범영, 이승렬 박사의 안내로 유라기에 관입한 과알루미나질 복운모 화강암과 반상 복운모 화강암을 관찰하는 것으로 야외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화천댐 동편으로 이동하여 흑운모 편마암을 관찰하였다. 이 암체는 흑운모 편마암 뿐만 아니라 호상 편마암, 안구상 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에서부터 흑운모 편암과 석영 편암에 까지 암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흑운모 편마암은 흑운모를 주로 하는 우흑대와 석영, 장석을 주로 하는 우백대가 교호하는 편리구조가 잘 발달하였고, 복잡한 습곡구조도 잘 나타났다. 자체 변성분화과정 혹은 외래 기원의 화강암질 물질의 유입에 의한 편마암화 작용과 화강암화 작용도 관찰되었다. 화천댐 방향으로 북한강 주변을 따라 이동하자 다음 관찰 대상인 각섬암체가 나타났고, 이 중에서 전단작용의 증거를 잘 보여주는 각섬암도 관찰되었다. 이승렬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각섬암은 백상 또는 소규모 암주상으로 분포하며 화강편마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백악기 세립질 화강암에 의해서 관입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 각섬암의 정치시기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내평도폭의 구봉산층군에 넓게 분포하는 각섬암과 기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약 850 Ma 시기에 관내부 환경, 즉 열곡 환경에서 분출 혹은 관입한 현무암질 암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야외조사의 마지막 노두를 관찰하기 위해 일행은 소양호로 발길을 돌렸다. 소양호 부근에서 일행은 화강편마암과 규장암/장석반암 등을 관찰하며 2박 3일간의 짧은 야외조사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현장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도지구조 연구실 기원서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는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글을 줄인다.

■ 춘계지질과학기술공동학술대회

- 일시: 2008년 4월 23일(수) - 25일(금)
- 장소: COEX 지구과학 한마당 축제 학술대회장
- 공동주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석유지질학회

■ 구조·에너지지질 분과위원회 제24차 학술심포지엄 및 야외답사

- 일시: 2008년 5월 22일(목) - 24일(토) (2박 3일)
- 장소: 삼척시청 재난안전방재상황실
- 주제: 삼척지역 지질자원과 비금속광산

■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 일시: 2008년 10월 23일(목) - 24일(금)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 논문초록제출마감: 2008년 9월 15일(월)
- 준비위원장: 도성재 부회장

지질학회지

박계현 편집위원장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운 지질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임명받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유능한 여러 편집위원장님들과 편집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회원님들의 참여로 지질학회지가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높은 평가를 받는 학회지의 발간은 학회활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진 여건을 돌아보면 어께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많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동안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의 자체평가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의 과제 선정시에 SCI에 등재된 학술지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여 평가해오면서 많은 회원들이 국내학회지에 대한 투고를 기피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국내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논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내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발간을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개정된 규정은 정회원 학회의 자격 조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 중 학술지 관련 항목으로는 5년간 연평균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하면 현재의 지질학회지는 정회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논문이 투고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지질학회에서는 2008년부터 지질학회지를 6회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두 달에 한 번씩 지질학회지가 발간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인 지질학회지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시 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의 투고가 연중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투고논문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학술지와 SCI 학술지에 대한 균형 잡힌 투고와 보고서에 사장된 연구성과의 국내학술지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우수한 논문들이 SCI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SCI 학술지에 더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잡지를 통한 지질학회지 논문의 인용은 지질학회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회원들이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또 학회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지질학회지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항상 모든 SCI 잡지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CI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논문들을 국내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내학술지와 SCI 학술지에 균형 잡힌 투고가 필요합니다.

지질학회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국내 연구기관들로부터의 투고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질학과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서는 대부분 보고서 위주로 연구 및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전체적인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지를 통한 적극적인 발표와 후속 토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질학계의 전체적인 발전과 더불어 해당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질학회지의 편집진은 투고되는 논문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빠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지질학회 여러 회원여러분들께서도 투고와 심사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1일

지질학회지 편집위원장 박계현 올림

편집위원회 구성

임기: 2008.3.1 - 2009.12.31

위원장	박계현	부경대학교 환경지질학과 051-629-6629 editor@gskorea.or.kr
부위원장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학과 02-3290-3176 styun@korea.ac.kr 환경지질학
위원	고희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기반정보연구부 042-868-3109 hjkh@kigam.re.kr 구조지질학
	김준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02-880-8190 junmokim@snu.ac.kr 수리지질학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기술부 042-868-0479 minho@kns.re.kr 지진학
	박유철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033-250-8586 parkyc@kangwon.ac.kr 지하수학
	석동우	한양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031-400-5535 dwsuk@hanyang.ac.kr 지구물리학
	손병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자원연구부 042-868-3208 sbk@kigam.re.kr 광물학
	유안창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053-950-5359 inchang@knu.ac.kr 퇴적지질학
	윤호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환경연구부 031-400-6419 hyoon@kopri.re.kr 해양지질학
	이광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환경추적자팀 042-865-3447 kslee@kbsi.re.kr 지구화학
	이민희	부경대학교 환경지질학과 051-629-6630 heelee@pknu.ac.kr 환경지구화학
위원	이승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질도·지구조연구실 042-868-3048 leesr@kigam.re.kr 암석학
	이찬희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041-850-8543 chanlee@kongju.ac.kr 문화재지질학

위원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062-530-3459 minhui@chonnam.ac.kr 고생물학
	황상일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053-950-5230 hwangsi@knu.ac.kr 지형학(제4기 지질학)
간사	이호선	부경대학교 환경지질학과 051-629-7979 edits@gskorea.or.kr

* 소속, 전화, e-mail, 전공분야

■ 연간 발간횟수 증편

지질학회지는 2008년도부터 연4호에서 연6호로 발간횟수를 증편하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말일을 발간일로 하였습니다.

■ 온라인 투고 웹페이지

<http://jgsk.gskorea.or.kr>

■ 웹하드 이용 안내

- 원활한 논문 투고와 편집업무를 위해 웹하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논문의 용량이 10MB 이상일 경우 편집간사에게 연락하시면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우. 608-737)

부경대학교 환경지질학과 내 지질학회지 편집위원회

Tel : 051-629-7979

Fax : 051-627-6840

E-mail : edits@gskorea.or.kr

Geosciences Journal

■ Springer 출판사와 협약 체결

Geosciences Journal의 해외 배포 및 판매를 Springer 출판사에 위임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지도 및 영향력을 높이고, 아시아권에서 손꼽히는 국제학술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7년 9월 17일(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세미나실에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짐.

■ 주요 협약 내용

- 협약 기간: 2008-2012년 (5년간), 5년 후 재계약 가능함.
- 한국지질과학협회의 GJ의 출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책임지며 관련 및 국내 배포에 대해 전권을 가진.
- Springer는 GJ의 해외 배포 및 판매를 위임 받아 자사 web page에 GJ를 등재함. 이를 통해 Springer 출판물 구독 시 GJ 논문들에 접근 가능해짐.
- 해외 기관의 구독료 등은 Springer에서 결정함.

■ 변경된 표지



■ Springer의 Geosciences Journal 웹페이지 주소

<http://www.springer.com/geosciences/journal/12303>

■ 2007년도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

ISI Web of Knowledge(<http://portal.isiknowledge.com>)는 2007년 6월 Geosciences Journal의 논문인용지수(Journal Impact Factor)를 0.625로 평가

■ 편집간사

고보균 박사(2007. 10. 1 - 현재)

E-mail: assistant@geosciences-journal.org

Tel : 02-887-6526

전임회장단 및 원로회원님들과의 신년하례식

- 일시: 2008년 1월 31일(목) 12:00 - 13:40
- 장소: 장원한정식(교대역 부근)
- 참석: 김상엽, 김성균, 김수진, 김정환, 민경덕, 박노영, 윤 선, 이병주, 이상만, 이우대, 이종혁, 장기홍, 정창화 (13인 참석)
- 현 이사진 5인 및 사무국장 참석
: 이현구, 도성재, 오창환, 이광식, 김준모, 유영희



2007년도 학술활동 사업실적

■ 학회창립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07년 4월 12일(목) - 13일(금)
- 장소: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402-403호)
- 주제: 지구 환경 변화(Global Environmental Change)
- 발표: 구두발표 17편, 포스터발표 50편
- 조직위원회:
 - 위원장 한 욱
 - 위 원 고상모, 김준모, 노 열, 윤호일, 이광환, 이영주, 정대교, 좌용주

-후원:

- 공식후원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산업체 (주)한화, 금호산업(주), (주)넥스지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대림산업(주), (주)동아건설터트, 동양기획, (주)동해이엔씨, (주)동호, 두산건설(주), 메타이엔씨, 벽산엔지니어링(주), 보령그라우팅공사협회의회, (주)산하이엔씨,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주)삼안, (주)삼중엔지니어링, (주)삼단, (주)새터기술, (주)세코지오, 쌍용건설(주), 씨엔에치, 엘투엘, (주)유신코퍼레이션, (주)인텔리지오, (주)제이스코리아, (주)지오스캔, (주)지오인포, 지오택건설터트(주), (주)토우지오반, 하리건설터트(주), 하이트맥(주), 한림원,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주)현대엔지니어링, 홍지기술산업(주), GS건설(주), SK건설(주)
- 기 관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 회 원 김정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성균(전남대학교 교수)
윤정중(한일콘크리트)
- 대 학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대한지질학회 60주년사 자료집 발간

- 발간위원회
- 위원장 김정환
- 위 원 기원서*, 김복철, 김연중*, 김영석*, 김준모, 도성재, 이용일, 장순근, 정대교*, 황상구
- 간 사 김중휘 (*는 당연직)

■ 학회창립60주년 기념식 및 만찬

- 일 시: 2007년 4월 12일(목) 17:00
- 장 소: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330호)
- 행사준비위원회
- 위원장 김연중
- 위 원 강준호, 기원서, 기정석, 김규상, 김선기, 김성구, 김용우, 노병돈, 박수환, 원종호, 우경식, 윤운상, 원경식, 이근병, 이동학, 이벽규, 이웅주, 이진무, 이창섭, 이흥규, 장천중, 정경문, 진영근, 최영철, 최재우, 최진범

■ 춘계지질과학기술공동학술대회

- 일 시: 2007년 4월 25일(수) - 27일(금)
- 장 소: 경주교육문화회관
- 주 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암석학회

■ 춘계학술답사

- 일 시: 2007년 4월 27일(금)
- 대 상: 어일분지의 주요 구조선과 분지충전물 (감포역압과 팔조리용화암)
- 안 내: 손영관(경상대학교), 손 문(부산대학교)

■ 분과활동

- 선생님과 함께 하는 제주도 지질탐사
- 일 시: 2007년 1월 22일(월) - 1월 24일(수)
- 장 소: 제주도 일대
- 참 석: 중고등학생 35명, 교사 10명
- 담 당: 박정웅 회원(송문고등학교)
- 구조·에너지 분과위원회 제23차 학술심포지엄 및 야외 답사
- 일 시: 2007년 6월 7일(목) - 6월 9일(토)
- 장 소: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
- 주 제: 안동 단층대 및 주변의 지질

■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 일 시: 2007년 8월 10일(수) - 8월 15일(수)
- 장 소: 한국국제전시장
- 강 연: 허민(전남대학교)
- 운영위원: 김연중, 기원서, 박기화, 엄병우, 이영주, 진영근
- 진행요원: 박동희, 손상혁, 이대길, 정성재
- 후 원: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자" 5,000개 기증

■ 대한지질학회-일본지질학회 Agreement 체결식 및 일본지질학회장 특강

- 일 시: 2007년 10월 25일(목) 13:30-14:10
- 장 소: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1층 강당

■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 일 시: 2007년 10월 25일(목) - 26일(금)
- 장 소: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발표편수: 245편(구두발표 115편 / 포스터발표 130편)
- 준비위원회:
- 위원장 김연중

- 위 원 기원서, 박기화, 박영록, 박유철, 손영관, 진영근

· 운영위원회:

- 위원장 박기화(대한지질학회)
- 위 원 김정진(한국광물학회)
- 박영록(한국암석학회)
- 이영주(대한자연환경지질학회)
- 허 민(한국고생물학회)

· 학술준비위원:

광물학	김정진(안동대학교)
암석학	김형수(경북대학교)
퇴적학 및 층서학	손영관(경상대학교)
구조지질학	김영석(부경대학교)
고생물학	허 민(전남대학교)
지구과학 및 환경지질학	김경웅(광주과학기술원)
	이민희(부경대학교)
지구물리학	황세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학(지열자원)	김용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학(지질공학)	채병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지질학	박명호(한국석유공사)
고기후학	현상민(한국해양연구원)
GIS, 원격탐사	이사로(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후 원: 강원대학교, 남양건설(주), (주)넥스지오,
(주)대우인터내셔널, 동부건설, (주)동아건설터트,
지오택건설터트(주), (주)진로, (주)진산,
오리엔트하드메탈즈홀딩스코리아(주),
GS건설(주), IODP 한국위원회

■ 후원

- 지질탐사 캠프
 - 일 시: 2007년 1월 22일(월) - 24일(수)
 - 장 소: 제주도 일대
 - 후 원: 티셔츠 50벌
-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캠프
 - 일 시: 2007년 7월 18일(수) - 7월 20일(금)
 - 장 소: 전남 해남 일대(공룡화석지, 퇴적암, 비금속광상 등)
 - 주 최: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후 원: 상금 100만원 지원
- 전국 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 일 시: 2007년 9월 7일(금)
 - 주 관: 충북대학교
 - 후 원: 상금 10만원, 상장

- 수상자: 김민지(청주 상당고등학교 2학년)

· 전국지질학과학생연합대회

- 일 시: 2007년 9월 8일(토) - 9일(일)
- 장 소: 경상대학교
- 주 최: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후 원: 100만원 지원

· 제53회 전국과학전람회

- 일 시: 2007년 10월 18일(목)
- 주 관: 국립중앙과학관
- 후 원: 상금 20만원, 상장
- 수상자: 김경민 · 배민진(부산 주감초등학교 6학년)
- 작품명: 모닥불의 연기는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오
는가?

■ 자원정책관련 건의서 제출

- 제출일시: 2007년 9월 10일(월)
- 제 출 처: 산업자원부, 광해방지사업단,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 · 자원R&D기획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건의서 주제:
 - 광업법 개정사항에 대한 건의서
 - 자원기술관련 연구개발 정책에 관한 건의서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건의서
 - 광해방지사업 관련 건의서
- 공동추진학회:
 -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연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지질학회상 수상자 명단과 공적

학술상



이진웅(강원대학교)
지하수관측망, 산업 및 군 기지 오염, 매립지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 연구



허 민(전남대학교)
신생대 개형충 화석에 대한 고생물학적 연구
체계화 성과

기술상



김봉상(충진산)
제주도 지하의 시추탐사와 지하수 개발, 응용
지질학의 역할과 위성제고에 헌신



김완중(오리엔트하드메탈즈홀딩스코리아㈜)
전라남도 해남 은산-모이산 금은광 발견 및 개
발에 지대한 공헌

논문상



이용일(서울대학교)
쇄설성퇴적암과 탄산염퇴적암의 퇴적작용, 퇴
적환경 및 속성작용에 대한 연구성과

젊은지질학자상



김락현(환경관리공단)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 관리 및 보전에 선도적
역할



한래호(고려대학교)
열분해물질이 지진성 단층운동 지시자의 하나
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

공로상



우경식(강원대학교)
제주도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
재될 수 있도록 학술지원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박병노(전남대학교)
지도교수: 노 열
발표논문명: 북극 Svalbard Tempelfjorden 지역
내 해양퇴적물의 광물학적 및 지구미생물학적
연구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상



조형성(부산대학교)
지도교수: 김인수
발표논문명: 진해시 동편 중성 및 염기성 암
맥군의 방향성과 지구조적 의의



전광민(강원대학교)
지도교수: 김기영
발표논문명: 저수지 제방에서의 탄성과 탐사

■ 학회비 납부 명단

- 2007년도

(2007.1.1 - 12.31)

[일반회원]

(309명)

강광호 강동환 강상진 강성승 강준호 강태섭 경재복 고정석 고보균
고상모 고영실 고재홍 고정희 고희재 박세건 구민호 구현우 구호본
권상훈 권석기 권성택 권영민 권영호 기민주 기원서 기정석 김강주
김건영 김경식 김규상 김규한 김기업 김기영 김기준 김대우 김대철
김동일 김락현 김복철 김봉상 김상범 김선기 김성구 김성균 김성용
김성원 김수정 김승범 김승우 김승현 김승희 김연기 김연중 김영규
김영석 김영석 김영화 김예동 김완중 김용제 김용철 김유봉 김의경
김의성 김일석 김일수 김정민 김정빈 김정연 김정진 김정천 김종균
김종선 김종현 김준모 김종욱 김진성 김진한 김충현 김동관 김 철
김형수 김형찬 노병돈 노 열 노진환 도성재 류종식 류종철 문상호
문종규 박 경 박기화 박명호 박성표 박성환 박수철 박영복 박영석
박영숙 박용희 박원배 박유철 박유현 박은규 박정웅 박정호 박준범
박진성 박찬홍 박충화 박태석 박희진 배광옥 백목련 백 용 백인성
서만철 서상기 서상덕 석희준 성영배 소윤희 손경준 손 문 손병국
손영관 송교영 송석환 송용선 송용구 송윤희 신동복 신동훈 신성천
신영홍 신원철 신현조 심병완 심택모 안규천 안준형 안종영 양동윤
양수영 양우현 양주석 엄정기 여인숙 연관희 오세봉 오재호 오진용
오창환 오한윤 우경식 우남철 원준선 유규철 유봉철 유용재 유정환
유재영 유현재 윤건신 윤성택 윤성호 윤소정 윤소욱 윤시태 윤운상
윤윤영 윤정수 윤진수 윤진오 윤혜수 이광룡 이광수 이광춘 이규상
이근병 이근혁 이기욱 이달희 이덕기 이동우 이미정 이민부 이병주
이봉주 이사로 이상선 이상현 이상훈 이상복 이상주 이수재 이수정
이영민 이영엽 이영주 이웅남 이의형 이재일 이정구 이정모 이정후
이종대 이종덕 이종의 이주용 이준기 이진수 이진영 이진용 이진환
이찬진 이찬희 이창섭 이창원 이철우 이광구 이한영 이현우 이현규
이훈열 이희권 임국목 임민빈 임무택 임소복 임창복 임현수 장광화
장세원 장순근 장윤득 장천동 장천중 장 호 전명순 전병철 전승수
전영수 정경문 정공수 정교철 정기영 정대교 정성용 정연중 정연준
정용택 정재일 정정인 정치연 정창순 정홍모 정희욱 조규성 조남찬
조문섭 조범준 조봉근 조석주 조성권 조성현 조성희 조종식 조현구
조형래 조호영 좌용주 지성훈 진영근 진재화 차성수 천정웅 최덕근

최두형 최문영 최법영 최상훈 최성희 최영섭 최원하 최원찬 최정찬
최정현 최진법 최호선 한병각 한 욱 함세영 함인경 허 민 허순도
허영숙 허철호 홍상민 홍세선 홍태경 황상구 황성규 황세호 황수진
황의홍 황인길 황 정

* 직전년도에 납부한 명단은 포함되지 않음.

[학생회원]

(89명)

강년건 강정길 권정하 권석범 권창우 기진석 김건기 김경아 김나영
김대영 김 려 김만경 김보성 김복혜 김상실 김영균 김영환 김유미
김윤섭 김재철 김중휘 김지영 김형범 나준석 남병훈 남승일 문동혁
박문재 박병노 박병준 박영윤 박주현 박 준 박진오 봉연식 서현희
송경아 송다희 송보라 신승원 신우진 신지연 양근영 양석준 엄진아
오중민 오찬성 윤경환 윤숙영 윤필선 윤희성 이경아 이대길 이명성
이민경 이민정 이민주 이범하 이상길 아성태 아성진 아신우 이영철
이은희 이재성 이재희 이향복 이향재 이현미 이현철 이호일 이호준
임현하 전광민 전용문 조경남 조형성 조호선 진광민 최영철 최재원
최지영 최진희 최태진 풍보현 한미애 한승록 홍성경 홍성희

[구독회원]

(38개 도서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군산대학교	농촌진흥청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단속자연사박물관	법문학술정보	부경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분관	정정옥(아시아저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농촌공사	한국수드케이	한양대학교

[특별회원]

(15개 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동아지질	㈜동아건설터트
리퍼지관리시멘트	㈜산하이엔씨	지오텍건설터트	한국광업협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연구원	경기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문헌정보실	

- 2008년도

(2008.1.1 - 5.19)

[일반회원]

(39명)

고동찬 권영호 김광희 김락현 김성구 김승현 김승희 김지훈 김진환
류종식 박영윤 봉연식 신양우 신우진 신재봉 원태식 윤진수 이광식
이승구 이재욱 이정엽 이종현 이진용 장병욱 장재훈 전호택 진성욱
최규영 최병각 최정현 허철호 황기성 황인길

[학생회원]

(6명)

이현아 유건상 김성우 정지욱 조형성 Soyul-Erdene

[구독회원]

(27개 도서관)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법문학술정보	부산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분관

정정옥(아시아저널)
한국수드케이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회원]

(2개 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후원활동 결과

■ 제2차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캠프 보고

이번 2007년 제2회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캠프에는 주최 교인 전남대를 비롯하여 강원대, 경상대, 부경대, 안동대, 전북대, 충북대 등 7개교에서 10분의 교수님과 8명의 대학원생, 65명의 학부생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의 치밀한 준비로 7월 18일에서 20일까지 전남 해남의 공룡 화석지와 박물관을 중심으로 평소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접해보기 힘든 다양하고 소중한 지질학적 현장들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학생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야외답사의 안내는 전남대의 전승수 교수님과 노열 교수님이 담당해주셨고, 공룡에 대한 설명은 전남대의 이대길 대학원생이 맡아주었다.

날씨관계상 체육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질 퀴즈대회에서 강원대의 이지영 학생이 1등을 차지하였고, 시추코어 기재 경진대회에서는 부경대의 양석준 학생이 1등을 차지하였으며, 참관후기 모집에서는 안동대의 박문재 학생의 글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차기 2008년 전국지질과학과 연합캠프는 강원대가 주최가 되어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 연합필드를 다녀와서

- 열정과 땀으로 하나 된 우리들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이학번 박문재
햇살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이른 아침,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하나 둘씩 학교에 모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먼저 앞으로 펼쳐질 2박3일간의 필드일정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드디어 출발한다.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저 멀리 해남의 공룡 발자국과 마주하고 있는 듯 심장이 흥분되어 쿵쿵거린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낮선 풍경들이 우리가 점차 안동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광주와 해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찾아가 보는 곳이다. 아마 지질학도가 아니라면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가 힘들 것이다. 이를 감히 지질학의 매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약 5

시간의 긴 주행 끝에 우리는 광주의 전남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정해진 일정에 맞게 대학별 소개와 연구발표가 있었다. 낮익은 사람들도 몇몇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초면이라 새내기들의 첫 수업만큼이나 설레고 긴장감이 났었다. 각 대학별 소개가 끝나고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각각의 다른 학교와 실험실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들이 마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경대학교의 최진혁군의 제3-4기의 구조 지질학적인 연구가 흥미로웠다. 그리고 우리 안동대학교에서는 아쉽게도 학생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지도교수님께서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생소한 퇴적역학(sedimentary dynamics)에 관련된 것들을 발표하셨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연구한 것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직후 우리는 연합필드를 위해 해남청소원 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전북대 학생들과 함께 숙소를 배정받고 인사를 나눈 후 늦은 밤의 담소를 나누며 내일의 본격적인 필드 일정을 위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둘째 날,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해남 우항리층 일대에 도착했다. 하늘이 도우신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걱정과는 달리 장맛비가 크게 내리지 않아 덥지도 않고 필드하기에는 적당한 하루였다. 나는 앞으로 보이는 우항리층의 자태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신비로워 입을 딱 벌여지고 말았다. 우항리층은 두 번의 화산 활동기 사이의 정제기간 동안에 형성된 백악기 후기의 해남분지내의 퇴적층이라고 한다. 먼저 호수 환경에서 기인하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서로 교호하는 염층리를 보이는 varve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층내 변형구조(convolute bedding)와 불꽃구조(flame structure)를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가장 특이한 구조가 뜰어내림 역전(rip-down clast)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세계최초로 발견되어 국제지질학계에 보고된 것이라고 전남대의 전승수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학생들은 교수님과 꼬리잡기 놀이를 하듯이 뒤쫓아 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쉬웠던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스스로 좀 더 관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정오에 점심을 먹은 후 다음 장소인 해남 성산광산으로 향했다. 비금속광상인 납석을 관찰하였는데, 화장품의 파우더 원료로도 쓰이는 상아빛의 도석(dickite)이 눈앞에 보였다. 더 가까이 다가가 헤머질을 해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 연한 회색빛의 광물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납석(pyrophyllite)이라고 노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시추코어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의 특징들을 주상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하나의 시추관 앞에 앉아서 주상도를 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나도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려고 관찰하고 고민해 보았지만 쉽지가 않았다. 아마도 커다란 층의 한 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상상하기

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정말 특별하고 좋은 기회였다.

오후 일정을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먼저 대학별 구분 없이 섞어서 남녀 짝을 정하고 발아구를 시작했다. 처음엔 쑥스러워 손잡기도 어색해하더니 게임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들 열심히 즐겁게 시합에 임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다함께 땀 흘리고 뛰 어다녔더니 어느새 좀 더 가까워진 친구가 되었고 모두다 하나라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우리 팀은 게임에 저서 토끼뎀으로 축구 골대를 들고 오는 벌칙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각 대학별 족구 시합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조금 빨리 일정을 마치고 수영도 하고 개인별 휴식을 취했다.

저녁을 먹은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파티가 시작되었다. 먼저 지질퀴즈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지질학적 상식과 필드기간 중 배운 것들에 관련된 퀴즈들이 출제되었다. 나는 탈락 후 기적적으로 패자부활전에서 회생하였지만 끝내 몇 문제를 남겨두고 아쉽게 최종 탈락하고 말았다. 결국 대거 참석한 강원대 학생들이 대부분 수상하였다. 퀴즈 도중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서 옷이 흠뻑 젖기도 했지만, 이런 기억들도 나중에는 아마 달콤한 추억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를 위한 건배가 제의되고, 각 대학별 소개와 장기지랑이 펼쳐졌다. 우리 안동대학교는 어김없이 학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지질학도가를 다함께 제창하였고, 모두들 박수를 치며 즐겁게 호응해 주셨다. 술자리는 점점 깊어져 갔고 교수님들과 좀 더 가깝게 술잔을 돌리며 마음속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만큼 다양한 대학생활과 실험실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나아가 지질학이라는 하나 된 흥미와 열정으로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의 아쉬운 해가 떠오르자 모두들 짐을 정리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이번 탐방장소는 공룡화석지와 공룡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보통 공룡은 영화나 TV에서나 접할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공룡화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공룡발자국들의 광경들은 어마어마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화석지를 자연 그대로 살려두고 건물을 지어 올려서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마치 대자연 위에 올라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다. 용각류와 조각류의 보행발자국 화석과 익룡과 새 발자국 화석 등 다양한 화석들을 볼 수 있었다. 아쉽게도 바쁜 스케줄로 사정상 허먼 교수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지만, 그 대신 대학원생으로 있는 이대길 선배가 몸으로 마치 자신이 공룡인양 역동적으로 열의를 다해 설명해 주셨기에 그 아쉬움을 대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2박3일의 일정이 어느덧 다 흘러가고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처음에 어색해하고 경계해하던 그런 모습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한 악수를 청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기념사진 촬영도 하는 모습들로 바뀌어 있었다. 모두들 서로를 아쉬워하며 다음에 있을 제3차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를 기대하며 각자의 길을 향했다. 나는 돌아오는 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3일간의 필드기간 동안 우리는 지역 간의 장벽을 넘어 지질학이라는 하나 된 열정과 땀으로 모두들 똘똘 뭉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지식들을 자연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좀 더 관찰하고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이었다. 또한 내 자신이 학생으로서 필드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아무쪼록 젊은 지질학도들을 위해 이번 연합필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남대학교 교수님들과 우리를 이끌어주신 조형래 교수님, 그리고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지질학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가올 제3차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를 고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사무국 직원 채용

다양한 학술활동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회원님들에 좀 더 나은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성 명: 위은정(강원대학교 지질학과 졸업)
입 사 일: 2008. 3. 17

신입 회원

■ 신입 회원

(2007.2.14 - 2008.5.19)

[일반회원]

(63명)

강동호 고광범 고동찬 박세건 구금용 권영분 김광희 김기동
김동일 김민수 김상근 김성수 김세중 김승희 김영택 김원중
김용호 김의경 김정훈 김형찬 류은영 박상표 백목련 백선기
변성환 송인현 신양우 신용은 양수영 원태식 유규철 유용재
유현재 윤광희 윤소정 이광수 이수정 이영동 이정엽 이종현
이주용 이준기 이찬진 이창원 이홍규 이훈열 임국목 전병주
전영수 전용조 정형석 조범준 조성희 조양운 지성훈 진성욱

차성수 차현진 천정용 최규영 한병각 홍동표 홍성민

[학생회원]

(82명)

강년건 강정길 기진석 김경아 김나영 김남훈 김대영 김민경
김민관 김병기 김선관 김성우 김세현 김양희 김영환 김윤정
김준호 김지영 김진성 김현지 남병훈 노오성 문동혁 문상철
박문재 박병준 박성호 박진오 서현희 송경아 송다희 송두섭
수호환 신지연 양근영 양석준 오영복 오지호 유건상 유재은
유천호 윤숙영 윤희성 이길재 이대길 이덕선 이민정 이민주
이범한 이보라 이상길 이성진 이신우 이은영 이은희 이재성
이재희 이종길 이항복 이현미 이현철 이호일 이효종 임현학
전경우 전광민 정승호 정치욱 조원욱 조 현 지호선 최승현
최영철 최지영 최진희 풍보현 한 미 한미애 한승록 허동혜
홍성혁 Soyol-Erdene

[구독회원]

국회도서관

학회비 납부 안내

새롭고 활기찬 학술활동을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회비납부
가 큰 힘이 되오니, 바쁜 일상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회비 납부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명: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납부금액

※ 회비 완납회원 및 종신회원에게는 지로용지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송금계좌

한국씨티은행 102-51739-241 대한지질학회

※ 반드시 "회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 전자결제 도입

학회홈페이지에서 회비 등을 신용카드 및 온라인으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테스트중에 있습니
다.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회원동정

■ 행복하세요.

나기창 회원 차녀 혼례	07.09.15
이근착 회원 차남 혼례	07.10.06
김용준 회원 차녀 혼례	07.10.28
박환구 회원 장녀 혼례	08.04.05
신양우 회원 차녀 혼례	08.04.05
김용준 회원 장녀 혼례	08.05.10

■ 축하드립니다.

정창식(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7년 올해의 KBSI 혁신인상 수상
서만철(공주대학교)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9대 회장(08.03.28)
강정국(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선임(08.05.20)
박명언(부경대학교)	총장 당선(08.05.20)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형기성 회원 모친상	07.01.18
이병주 회원 장모상	07.03.15
이강근 회원 모친상	07.03.30
최용석 회원 모친상	07.04.23
이성숙 회원 부친상	07.05.17
좌용주 회원 장모상	07.05.25
이천복 회원 별세	07.05.27
이재용 회원 모친상	07.08.01(발인)
손병국 회원 부친상	07.08.07(발인)
이인성 회원 부친상	07.08.22
최석원 회원 모친상	07.10.21
장세원 회원 모친상	07.10.29
이흥규 회원 부친상	07.11.10

경제복 회원 부인상	07.11.22
박홍수 회원 별세	07.11.27
김지훈 회원 모친상	07.12.01
김예동 회원 장인상	08.01.22(발인)
윤성호 회원 모친상	08.02.05(발인)
김정찬 회원 부친상	08.02.29
김영석 회원 장인상	08.03.14(발인)
박관순 회원 장모상	08.04.04
고기원 회원 모친상	08.04.15
장기홍 회원 모친상	08.05.01

근조기 안내

학회에서는 근조기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애사 시 학회사무국 또는 홈페이지의 회원동정에 올려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빈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바랍니다.

※근조기 회수는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편하게 이용바랍니다.

회원님 정보가 변경되었습니까?

소속기관 이동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회홈페이지(www.gskorea.or.kr), E-mail(office@gskorea.or.kr)을 통하여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원 · 고 · 투 · 고 · 안 · 내

대한지질학회 소식지는 회원들의 소식 및 의견을 받습니다.

2007년도 SCI 논문목록 및 제주도지질탐사보고서 등은 페이지 초과로 인하여 다음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office@gskore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포식 등록

「UN이 정한 지구의 해」 선포식 및 지구과학 한마당 축제

- 일시 : 2008년 4월 23일(수) - 25일(금)
- 장소 : 코엑스
- 주최 : 「UN이 정한 지구의 해」 한국위원회
- 주관 :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지구과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암석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석유지질학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지구의 해 선포식(대회장 이상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도연, 추진위원장 장호완, 조직위원장 최석원, 사무총장 한 옥)



지구의 해 선포식



지구의 해 선포식 경청



지구의 해 선포식 경청



지하수/먹는물 시음대회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대한지질학회 창립 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시 : 2007년 4월 12일(목) - 13일(금)
- 장소 :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
- 주관 : 대한지질학회
-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수력원자력㈜



개회식



발표장



발표장



포스터발표



국제학술대회 단체사진



60주년기념 케익커팅



공로상 수여




감사패 수여



60주년 만찬



60주년 만찬



(사) 대한지질학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3호(우.135-703)

Tel : (02)3453-1550

Fax : (02)3453-1824

E-mail : office@gskorea.or.kr

URL : <http://www.gskorea.or.kr>